

무안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선두주자

행정안전부 주관 특별상 우수 자치단체 선정

사랑방 운영, 워크숍 실시 등 교육 분야 인정

무안군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12일 행정안전부 장관상(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받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편성의 다양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여건·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특별상을 신설하였으며, 이번 평가는 각 분야별 정책의 추진 노력과 효과 등

을 심사하여 반영했다. 군은 김산 군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주민참여예산의 확대 운영을 위해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사랑방 운영,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워크숍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군민제안을 받기 위해 군민 제안엽서를 제작하여 관내 전 금융기관과 읍·면사무소에 배치하였고 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언제든지 군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참여예산 사랑방 운영과 참여예산학교 운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사의재에서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크리스마스 조명 조형물 설치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지난 11일부터 사의재 저잣거리 일대에 야간 조명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알렸다.

조만간 크리스마스 행사장인 사의재 저잣거리 일대에는 5M와 3M 크리스마스 트리, 각종 캐릭터 풍선 및 LED 빛조명 포토존으로 꾸며졌다. 오는 21일에는 재현배우들이 미션과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고, DJ와 함께하는 캐럴듣기, 겨울 만화

영화 상영 등의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를 기획한 강진군문화관광재단 임채성 마케팅팀장은 “크리스마스 행사는 타지역 관광객 보다도 우리 지역분들에게 올 한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획하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같이 즐기고 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목포시,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27일 까지 모집

목포시는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지원대상자를 12월 16일부터 27일 까지 12일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과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스포츠강좌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유·청소년들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 1강좌 월 80,000원 범위 내 강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3,66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 해와 달라진 점은 1인당 연간 최소 8개월 이상 지원, 카드 발급 절차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시청각 장애인대상 및 춤형 전용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그동안 19,005여명에게 태권도, 학기도, 겸도, 헬스 등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체력증진



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자는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기록인 만5세~만18세(2002. 1. 1. ~ 2015. 12. 31.) 유·청소년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er.kspo.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들이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57개 강좌시설을 확보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장흥문화원, 안중근의사 서화특별전

내일 오후…41점 선봬

장흥문화원은 오는 18부터 20일까지 장흥군민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안중근의사 정신계승 서화특별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숭고한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내유일 안중근 사당이 있는 장흥 해동사'를 널리 알리는 기회와 장흥 지역 문화유산자원으로서 토대 마련을 위한 서화특별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2019년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면서 안중근 의사 탄신 140주년 이자 하얼빈 의거 110주년을 맞은 매우 의미가 깊은 해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서예, 회화, 서각 등 장흥출신 37인 작가가 평화를 바라는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담아 41여점 작품을 전시하고 하얼빈 의거 1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진다.

장흥=위지훈 기자

전시회 작품들은 장흥을 대표하는 중견작가의 작품들과 (사) 한국서가협회장흥지부, (사) 한국서예협회장흥지부 후원 작품으로 구성됐다.

이번 특별전에는 위홍량, 윤수옥, 이정호, 이문갑, 이봉준, 이정호, 안창호, 김선호, 이명진, 이원호, 이종희, 김채홍, 이영복, 문기봉, 위기환, 임만엽, 박형록, 장근호, 안남식, 이양진, 김만배, 이진홍, 이삼용, 권문옥, 문상일, 남택이, 최병길, 과태송, 선학, 노종건, 박병호, 임형두, 문재평, 위오남, 이종민, 위경애, 노병두, 위향량(37명)이 출품하였다.

고영천 장흥문화원장은 “장흥군에서 안중근의사의 정신을 기리는 서화전이 처음으로 열리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의향 장흥의 저력을 실감하고, 앞으로도 문화가 숨 쉬는 ‘길이 길이 흥할 장흥’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위지훈 기자

함평군 ‘1시군 1특화작목’ 종합평가회

대추재배농가 대상



회를 개최하고 올해 기상분석과 대추 다수화 사례,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병해충 방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 2017년부터 대추를 1시군 1특화작목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9㏊의 개량비기肥사업 등을 지원해 20㏊ 기량의 대추 기반을 조성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